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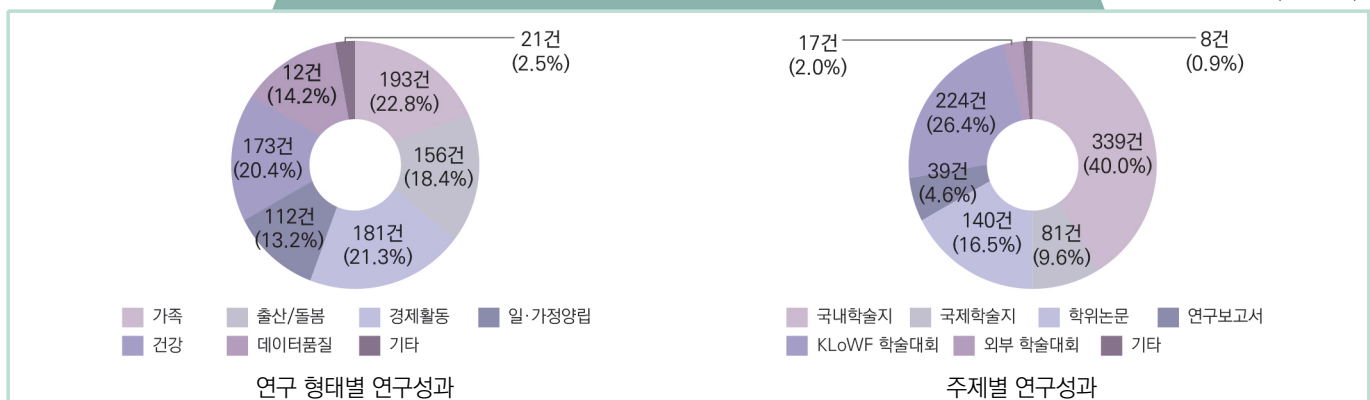
변화하는 여성의 삶과 가족: 여성가족패널 10차 조사로 본 주요 이슈와 정책과제*

초록

- ▶ 여성가족패널조사는 2007년 구축 이후 약 20년간 여성의 생애과정, 경제활동, 가족관계 및 가치관 변화를 추적해 온 국내 대표 여성·가족 분야 종단조사로, 10차 조사에서 총 6,909가구, 여성 응답자 9,024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며 1기 패널 운영을 마무리하였음.
- ▶ 10차 조사에 대한 분석결과, 비혼여성의 결혼 의향은 34.2%에 그쳤고 만 49세 이하 여성의 88.0%가 향후 자녀 계획이 없다고 응답하는 등 혼인·출산 이행의 지연 및 비선택 경향이 확인되었음.
- ▶ 결혼 필요성에 대한 동의 비율은 48.6%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비혼동거(40.7%)와 비혼출산·양육(25.1%)에 대한 수용도는 제한적인 수준으로 나타났음. 반면, 성평등한 가사분담(86.7%)과 돌봄 책임 공유(92.2%)에 대한 동의는 높았으나, 식사·요리 준비는 88.0%, 설거지는 82.3%가 아내가 거의 매번 수행한다고 응답하는 등 실제 가사·돌봄 부담은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 산전후휴가(27.3%), 육아휴직(33.3%) 등 일·가정양립 제도의 제공 수준은 제한적이었으며, 직장 내 성차별 인식도 여전히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부모의 자녀부양 책임은 강하게 인식된 반면 자녀의 부모부양 책임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아 세대 간 부양관계의 변화가 확인되었음.
- ▶ 이러한 결과는 혼인·출산 등 가족 가치관의 변화와 성평등 의식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인식과 현실 간의 격차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일·가정양립, 성평등한 돌봄,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확대 필요성을 시사함.

여성가족패널 연구성과(2008~2025.8)

(단위: %)



* 이 이슈페이퍼는 2025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보고서 내용을 일부 발췌하고 정리해 제작되었습니다.

출처: 조선미, 이다경, 이서현, 이진숙, 박송이, 김은정, 이은아, 손창균(2025). 2025년 여성가족패널조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 배경 및 문제점

- ▶ 저출생·고령화의 심화와 가족구조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결혼·출산·돌봄·노동·가족관계 등 여성과 가족의 삶 전반에서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특히 혼인 및 출산 등 가족구성 방식의 변화, 가족 다양성 증가,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은 개인과 가족의 생애과정을 빠르게 재편하고 있음.
- ▶ 데이터 기반 정책수립이 강조되는 환경에서 단일 시점의 횡단자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여성의 삶과 노동·돌봄·가족생활·가치관 변화를 장기간에 걸쳐 추적하는 종단자료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 ▶ 여성가족패널조사(KLoWF,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는 국내 유일의 여성·가족 분야 종단조사로서 여성의 생애과정, 경제활동, 일·가정양립, 가치관 변화 등을 장기적으로 추적하는 전국 규모 자료임.
- ▶ 12007년 전국 9,068가구의 만 19~64세 여성 9,997명을 대상으로 패널을 구축하였음. 10차조사 조사대상은 총 12,037가구(기존패널 9,865가구, 추가패널 2,172가구)의 적격 가구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최종적으로 6,909가구(기존패널 5,449가구, 추가패널 1,460가구), 여성 응답자 9,024명(가중치 부여 전)에 대해 조사를 완료함.
- ▶ 2007년 1차조사 이후 2025년 10차 웨이브 구축으로 1기 패널 운영을 마무리하였으며, 2026년부터 2기 패널 체제를 도입하고 한국가족패널조사로 개편할 예정임. 이에 본지에서는 10차조사 결과 및 여성가족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성과를 종합 정리하고, 결혼·출산 가치관 변화, 여성 경제활동 및 일·가정양립, 돌봄과 가족관계 변화 등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를 진단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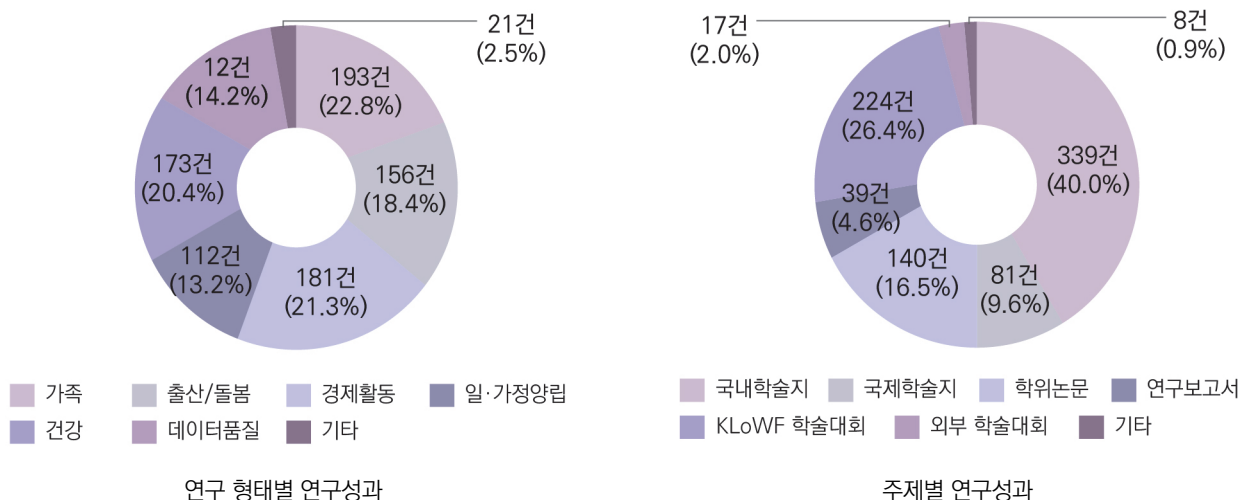
2 주요 분석결과

1) 여성가족패널 성과 요약

- ▶ 2025년 8월까지 총 848건의 연구성과가 축적되었으며, 주제별 연구성과는 가족(22.8%), 경제활동(21.3%), 건강(20.4%), 출산·돌봄(18.4%), 데이터(14.2%), 일·가정양립(13.2%) 등으로 다양하게 분포하여 여성과 가족의 생애과정 전반을 포괄하는 분석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 연구형태별 연구성과는 국내학술지 논문(40.0%)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학술대회 발표(28.4%), 학위논문(16.5%), 국제학술지 논문(9.6%) 순으로 나타나 학술연구 수행에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여성가족패널 연구성과(2008~2025.8)

(단위: %)



2) 10차 조사자료 주요 기초분석 결과

가. 혼인 및 출산 이행의 변화

- ▶ 비혼여성의 결혼 의향을 살펴보면, 결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4.2%에 그친 반면, 결혼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미결정 또는 유보 상태의 응답은 39.6%로 더 높게 나타났음. 연령별로는 30대의 결혼 의향이 50.4%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고, 교육수준 별로는 전문대졸 이상이 36.9%로 다른 집단 대비 가장 높았음.
- ▶ 만 49세 이하 여성의 향후 자녀 계획을 살펴보면, 88.0%가 자녀 계획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자녀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3%에 불과하였음. 또한 자녀 계획이 있는 응답자 중에서도 34.6%는 출산 계획 시점을 2년 이후로 응답하여 출산 이행의 장기적 유예 경향이 확인되었음.

〈표 1〉 비혼 여성의 결혼 의향

(단위: %, 천명(%))

구분		있음	없음	생각해 본 적 없다	계
연령	20대 이하	30.3	17.5	52.2	2,307(100.0)
	30대	50.4	19.9	29.8	1,863(100.0)
	40대	15.4	50.6	34.0	548(100.0)
	50대	13.1	71.6	15.4	280(100.0)
	60대 이상	13.0	50.6	36.3	226(100.0)
	계	1,788(34.2)	1,365(26.1)	2,071(39.6)	5,224(10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0.1	37.0	62.9	135(100.0)
	고졸	29.1	28.6	42.3	1,360(100.0)
	전문대졸 이상	36.9	25.0	38.1	3,702(100.0)
	계	1,762(33.9)	1,365(26.3)	2,070(39.8)	5,197(100.0)
계		1,788(34.2)	1,365(26.1)	2,071(39.6)	5,224(100.0)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25). 여성가족패널조사 원자료 분석(가중치 부여)

〈표 2〉 자녀 계획

(단위: 천명, %)

구분		응답자수	비율
자녀 계획	있음	287	6.3
	없음	3,987	88.0
	모르겠다	257	5.7
계		4,531	100.0
자녀 계획 시기	1년 이내	166	57.7
	1~2년 사이에	22	7.7
	2년 이후	99	34.6
계		287	100.0

주: 만 49세 이하만을 대상으로 조사함. 자녀 계획 시기는 가중치 부여 전 유효표본 수가 작으므로 해석 시 유의 필요.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25). 여성가족패널조사 원자료 분석(가중치 부여)

나. 결혼 및 가족 가치관 변화

- ▶ 결혼관을 살펴보면,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인식에 동의한 비율(매우 그렇다+조금 그렇다)은 48.6%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였음. 반면 결혼을 하면 자신의 생활이 구속된다는 인식에 대한 동의 비율은 70.3%, 결혼보다 자신의 성취가 더 중요하다는 인식에 대한 동의 비율은 59.4%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였음.
- ▶ 자녀관 및 가족형태 인식을 살펴보면,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인식에 동의한 비율(매우 그렇다+조금 그렇다)은 58.4%로, 앞선 결혼 필요성에 대한 동의 비율(48.6%)보다 높게 나타났음. 또한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동거(비혼동거)에 대한 동의 비율은 40.7%, 결혼하지 않아도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다는 인식(비혼출산)에 대한 동의 비율은 25.1%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용도가 확인되었음.

〈표 3〉 결혼관과 자녀관

(단위: %, 천명(%))

구분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결혼관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12.5	36.1	44.3	7.1	21,291(100.0)
결혼은 일찍 하는 것이 좋다	7.6	32.9	51.4	8.1	21,291(100.0)
결혼하면 자녀를 일찍 갖는 것이 좋다	13.2	43.8	38.5	4.4	21,291(100.0)
결혼을 하면 나 자신의 생활이 구속 받는다	13.0	57.3	26.9	2.9	21,291(100.0)
결혼보다는 나 자신의 성취가 더 중요하다	11.4	48.0	36.5	4.1	21,291(100.0)
자녀관 및 가족형태 인식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18.3	40.1	35.7	5.9	21,291(100.0)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	12.9	52.9	29.4	4.8	21,291(100.0)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동거할 수 있다	4.1	36.6	40.3	18.9	21,291(100.0)
결혼하지 않아도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다	3.4	21.7	44.3	30.7	21,291(100.0)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25). 여성가족패널조사 원자료 분석(가중치 부여)

다. 성평등 가치관 확대와 지속되는 가족 내 역할 분업

- ▶ 가족 내 성역할 인식을 살펴보면, 맞벌이 부부의 가사분담에 대한 동의 비율(매우 그렇다+그렇다, 86.7%), 아버지의 공동돌봄 책임에 대한 동의 비율(92.2%), 여성의 가족부양 책임에 대한 동의 비율(89.8%)이 높게 나타나 성평등한 역할 분담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 반면 남성은 직장, 여성은 가정을 돌보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인식에 대한 동의 비율(매우 그렇다+그렇다)은 40.1%, 취학 전 자녀를 둔 주부의 취업이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에 대한 동의 비율은 48.9%로 나타나, 성평등 가치관의 확대와 전통적 성역할 인식이 여전히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표 4〉 가족 내 역할 인식

(단위: %, 천명(%))

구분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남자는 직장을 가지고 여자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6.8	33.3	44.0	15.8	21,291(100.0)
주부도 직장을 다녀야 부부관계가 평등해진다	13.4	48.0	32.8	5.8	21,291(100.0)
취학 전 자녀를 둔 주부가 일을 하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9.6	39.3	44.3	6.8	21,291(100.0)
맞벌이 부부는 집안일도 공평히 분담해야한다	35.1	51.6	12.1	1.2	21,291(100.0)
부부라도 수입은 각자 관리해야 한다	13.5	42.1	38.6	5.8	21,291(100.0)
같이 사는 주택은 부부 공동명의로 해야 한다	28.0	49.9	20.7	1.4	21,291(100.0)
아버지도 어머니와 똑같이 자녀를 돌볼 책임이 있다	44.9	47.3	7.6	0.1	21,291(100.0)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다	41.8	48.0	9.8	0.4	21,291(100.0)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25). 여성가족패널조사 원자료 분석(가중치 부여)

- ▶ 한편, 가족 내 역할 인식에서 성평등 가치관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사노동 수행에서는 전통적 성별 분업 구조가 여전히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사·요리 준비(88.0%)와 설거지(82.3%)는 아내가 거의 매번 수행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세탁(53.1%)과 식사·요리 준비(47.5%)의 경우 남편이 전혀 수행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높게 나타났다.

〈표 5〉 부부의 항목별 가사노동

(단위: %, 천명(%))

구분		거의 매번	일주일 4~5일	일주일 2~3일	일주일 1일	그보다 드물게	전혀 하지 않음	계
아내	식사·요리 준비	88.0	7.7	3.3	0.2	0.1	0.6	12,504(100.0)
	설거지	82.3	12.6	4.0	0.2	0.3	0.5	12,504(100.0)
	세탁	24.4	26.7	41.6	5.8	0.8	0.7	12,504(100.0)
	시장보기·쇼핑	19.3	16.9	45.8	13.4	3.9	0.7	12,504(100.0)
	집안 청소	48.1	28.2	19.2	3.1	0.7	0.7	12,504(100.0)
남편	식사·요리 준비	3.1	1.8	11.9	13.8	21.8	47.5	12,504(100.0)
	설거지	4.7	4.4	18.6	16.6	18.9	36.9	12,504(100.0)
	세탁	1.3	0.9	7.7	13.7	23.2	53.1	12,504(100.0)
	시장보기·쇼핑	1.1	1.0	10.3	29.4	23.2	35.0	12,504(100.0)
	집안 청소	4.2	5.4	22.3	25.5	16.6	26.2	12,504(100.0)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25). 여성가족패널조사 원자료 분석(가중치 부여)

라. 가족부양 인식과 세대 간 관계 변화

- ▶ 부모의 자녀부양 책임에 대한 인식은 높게 나타났다. 부모는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해주어야 한다는 인식에 대한 동의 비율(매우 그렇다+조금 그렇다)은 92.8%, 부모는 성인 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도와주어야 한다는 인식에 대한 동의 비율은 68.6%, 부모는 자녀의 결혼자금을 마련해주어야 한다는 인식에 대한 동의 비율은 55.5%로 나타났다.

- ▶ 반면 부모가 나이가 들면 자녀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인식에 대한 동의 비율(매우 그렇다+조금 그렇다)은 22.2%에 그친 반면, 동의하지 않는 비율은 77.7%로 나타나 부모의 자녀부양 책임은 강하게 인식되는 반면 자녀의 부모부양 책임은 상대적으로 약하게 인식되는 등 부모와 자녀의 세대 간 부양 책임 인식의 비대칭성이 확인되었음.

〈표 6〉 부양에 대한 가치관

(단위: %, 천명(%))

구분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부모는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34.8	58.0	6.9	0.3	21,291(100.0)
부모는 자녀의 결혼자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8.3	47.2	41.9	2.6	21,291(100.0)
부모는 성인 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도와주어야 한다	7.9	60.7	28.7	2.7	21,291(100.0)
부모가 나이가 들면 자녀는 부모와 함께 살아야 한다	2.7	19.5	60.4	17.3	21,291(100.0)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25). 여성가족패널조사 원자료 분석(가중치 부여)

마. 여성 경제활동과 일·가정양립

- ▶ 일·가정양립 및 모성보호 제도의 직장 내 제공 수준은 전반적으로 제한적으로 나타났음. 산전후휴가(27.3%), 육아휴직(33.3%), 배우자육아휴직(26.3%),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9.2%) 등의 등 일부 제도는 법정 의무제도임에도 제공받을 수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도가 제공되는 경우에도 실제 본인이 혜택 대상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음.
- ▶ 직장 내 성차별에 대한 인식(정말 그렇다+대체로 그렇다)은 업무배치(14.6%), 구조조정(12.9%), 급여(12.2%), 채용(11.9%), 교육·연수기회(11.2%), 승진(11.1%) 순으로 나타났음. 성차별 인식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편이었으나, 채용·승진·임금뿐 아니라 업무배치와 구조조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확인되었음.

〈표 7〉 복리후생 제공여부 및 혜택여부

(단위: %)

구분	직장 제공여부			직장 제공시 본인 혜택여부		
	제공	제공 안 됨	모름	해당	비해당	모름
법정퇴직금	80.3	18.0	1.8	88.8	10.0	1.1
유급휴가	58.3	37.2	4.6	93.8	5.7	0.5
생리휴가	17.8	74.4	7.9	58.6	31.8	9.6
산전후휴가(유사산휴가포함)	27.3	60.8	11.9	40.7	53.5	5.8
육아휴직	33.3	57.6	9.1	39.3	55.9	4.8
배우자육아휴직	26.3	62.4	11.2	-	-	-
육아기근로 시간단축제	9.2	84.2	6.6	56.6	43.1	0.3
탄력근로시간차출퇴근제	9.0	85.2	5.8	50.3	49.4	0.3
출산장려금	7.8	83.7	8.5	51.2	48.4	0.4
보육비 지원	7.8	83.7	8.4	53.8	45.6	0.6
직장 보육시설	4.6	89.4	6.1	72.9	26.0	1.1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25). 여성가족패널조사 10차조사 원자료 분석(가중치 부여)

〈표 8〉 직장에서의 성차별에 대한 견해(임금근로자)

(단위: %, 천 명(%))

구분	정말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채용시 차별 (사람을 뽑을 때 비슷한 조건이면 여자보다 남자를 더 선호하는 편이다)	0.6	11.3	50.6	37.5	8,849 (100.0)
승진시 차별 (경력이 같거나 비슷해도 남자 직원의 월급이나 수당이 여자 직원보다 많은 편이다)	1.5	9.6	49.3	39.6	8,849 (100.0)
급여 차별 (직급이 같거나 비슷해도 남자 직원이 여자직원보다 승진이 빠른 편이다)	1.0	11.2	48.5	39.3	8,849 (100.0)
업무배치 차별 (남자직원이 하는 일과 여자 직원이 하는 업무가 고정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구분되어 있다)	1.4	13.2	47.5	37.9	8,849 (100.0)
교육연수기회 차별 (비슷한 업무를 해도 남자 직원이 여자 직원보다 교육이나 연수받을 기회가 더 많다)	0.6	10.6	48.5	40.3	8,849 (100.0)
구조조정시 차별 (구조조정을 할 경우에 남자 직원보다 여자 직원이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	0.5	12.4	46.3	40.8	8,849 (100.0)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25). 여성가족패널조사 10차조사 원자료 분석(가중치 부여)

3 정책제언

- ▶ 혼인·출산 중심 접근을 넘어 생애과정 전반의 삶의 여건 개선 필요
 - 비혼여성의 결혼 의향과 출산 계획이 낮게 나타난 것은 개인의 선택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고용, 주거, 돌봄, 일·가정양립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여건과 연계된 결과로 볼 수 있음. 저출생 대응 정책은 혼인·출산 장려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정책당사자인 청년층의 안정적인 삶의 기반과 생애과정 전반의 삶의 질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
- ▶ 성평등한 돌봄 및 가사분담 실현을 위한 정책 강화 필요
 - 성평등한 가사분담과 공동돌봄에 대한 인식은 높게 나타났으나 실제 가사노동은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목표로 부모 공동돌봄 참여 확대, 남성의 돌봄 참여 지원,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조성 등을 통해 성평등한 돌봄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 일·가정양립 제도의 실질적 이용 가능성 제고 필요
 -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법정제도 뿐만 아니라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 유연근무제 등 일·가정양립을 위한 주요 제도가 직장 내 이용 가능성을 제한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제도의 도입 확대뿐 아니라 실제 이용이 가능한 근로환경 조성, 중소기업장 지원, 경력유지 지원 등을 통해 일·가정양립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 세대 간 부양관계 변화와 가족구조 다양화에 대응한 사회적 지원체계 강화 필요
 - 부모의 자녀부양 책임은 강하게 인식되는 반면 자녀의 부모부양 책임은 상대적으로 약하게 인식되는 등 전통적 가족부양 구조의 변화가 확인되었음. 저출생·고령화와 세대 간 부양인식 변화에 대응하여 가족 중심의 돌봄을 넘어 사회적 돌봄체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돌봄 관계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조선미, 이다경, 이서현, 이진숙, 박송이, 김은정, 이은아, 손창균(2025). 2025년 여성가족패널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25). 여성가족패널조사 10차조사 원자료.
여성가족패널조사(KLoWF) 홈페이지, <https://gsis.kwdi.re.kr/klowf/portal/klowfIntroPage.do?>

주관부처 성평등가족부 가족정책관·고용평등정책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정책국

관계부처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
